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 강의 10, 누가복음: 배경과 주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누가복음의 배경과 주제에 관한 신약성경 역사와 문학 강의 10번을 발표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아, 계속해서 가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퀴즈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 퀴즈 중 하나가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발표는 아직 TA 시간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요일 저녁 언젠가 이 방에서 리뷰 슬래시 추가 학점 세션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대로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신약성경 수업에서 이메일이 오면 꼭 확인해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학술 지원 센터를 통해 다른 검토 세션에도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추가 크레딧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TA가 수요일 저녁에 개최할 세션이며 추가 학점을 계산할 세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정확히 언제, 어디서 모임이 있는지 알아내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바로 여기 이 방에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퀴즈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단지 당신의 계시를 넘어 우리에게 궁극적인 계시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일할 때, 우리가 살아 있는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마주하게

되고, 성경 자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더욱 확신을 갖고 격려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왼쪽 열에 공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기에 답을 올바른 문자로 기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그라미를 치지 마세요. 원하는 경우 동그라미를 칠 수 있지만 채점되는 항목은 공백이 있는 왼쪽 열입니다.

따라서 퀴즈의 왼쪽 열에 있는 해당 공간에 답변이 기록되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오로지 교과서 읽기에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우연입니다.

5개는 답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그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아, 네, 다섯 번째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이상해졌습니다. 6번 장, 아래에 두 세트의 답이 있는 6번이 있다면, 그것이 두 번째 세트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라고 적힌 첫 번째 줄은 무시하세요.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여섯 번째의 정답은 예수는 랍비였으며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거의 모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알았어. 응, 응, 응.

예. 괜찮은. 네가 옳아.

여섯 번째. 네, 6번이 첫 번째 세트예요. 좋아요.

이것은 퀴즈 B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두에게 공짜입니다. 여섯 번째, B는 첫 번째 답변 세트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퀴즈가 있습니다. 맨 위에 문자 A와 문자 B가 있습니다. 문자 A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5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B, 숫자 6, 첫 번째 답변 세트인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괜찮은. 그것들을 건네주세요.

끝까지 손을 뺐은 다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음 퀴즈를 약속합니다. 다음 퀴즈는 덜 혼란스럽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것을 내 컴퓨터 탭으로 돌린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복음서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주제를 강조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uke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루크의 독특한 점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대해서도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는 독특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이 예수를 주로 다윗의 자손,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교사로 묘사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기 위해 마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또한 구약의 성취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모세입니다. 우리는 마가를 통해 마가가 주로 예수를 하나님이자 승리자로 묘사하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아마도 마가가 다루고 있는

상황과 청중으로 인해 그의 고통과 열정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에는 어떤 독특한 점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이 신약성서 누가복음 서론에서 이 내용을 읽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실제로 누가복음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학기 초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실제로 누가와 사도행전으로 구성된 두 권으로 구성된 작품의 일부.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첫 장을 읽고 사도행전의 첫 장으로 가보면 그 둘이 함께 속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원래는 2권짜리 작품이었습니다.

왜 분열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 누가와 사도행전이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은 이유 중 적어도 하나는 누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누가는 유사한 다른 책인 마태복음과 함께갑니다. 마크와 존.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본 것처럼 특히 바울 서신에 대한 적절한 소개를 제공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서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수행하는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 적합한 다리이며,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등과 같이 사도행전의 일부 주요 인물이 실제로 쓴 편지로 확장됩니다. 기타.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실제로는 함께 속합니다. 누가는 신약성경에 포함되었을 때 나누어진 두 권으로 된 책 중 제1권이었고, 누가는 비슷한 다른 책인 마태, 마가, 요한과 함께 나갑니다. 실제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자신이 복음서를 어떻게 썼는지, 왜 썼는지에 대해 꽤 많이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의 처음 네 구절은 전형적인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처음 네 구절에서 많은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크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와 글을 쓰게 된 과정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이 착수하였으니 먼저 처음 네 절만 읽겠습니다. 말씀의 종들이여, 나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데오필루스는 여러분이 배운 것들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자금을 지원한 후원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누가는 다른 기록된 자료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의 신뢰성에 대해 논의할 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까지에 대해 이미 조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리스도의 생애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한 다른 기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다른 기록 출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중 한 명 이상이 마가나 마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누가가 분명히 인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다른 기록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가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제 그것들을 보충하거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록을 쓰겠다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둘째, 누가는 목격자에게도 의존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 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서면 출처와 기록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보고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자세한 말이 있는 첫 두 장의 내용이 아마도 목격자들에 의해 그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이 의지하는 목격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다른 출처나 다른 기록이 부적절하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는 자신의 기록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초기에 누가복음의 많은 초기 라틴 사본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1-4절이 누가 자신이 한 일과 너무 흡사하게 들리는 것처럼 나와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같다고 말하는 라틴어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감받은

성경으로 승인하기 위해 라틴어로 된 몇 가지 문서에는 실제로 성령에 대한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도 행전 15장에 있는 누가의 다른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글을 쓰고 있다는 어떤 암시라도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작가들이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누가는 자신이 일반적인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 외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록 누가복음에서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다름 아닌 누가복음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질서정연한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이 책의 정확성과 순서에 중점을 두지만, 순서가 반드시 연대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누가는 1세기 전기의 전형적인 경우처럼 자료를 연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또는 주제별로 배열합니다. 때로는 마태복음의 한 부분에 있는 자료가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마가복음의 한 부분이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누가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혼란스럽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때때로 복음서 저자 중 한 사람인 마태, 마가, 누가가 사건을 발생한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배열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누가가 다른 복음서보다 연대순으로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때때로 자신의 책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사건이 발생한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루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누가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전통에 따르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는 바울의 동료였으며, 이것이 누가복음이 성경에 포함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은 예수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의 사도 중 한 사람인 바울과 친밀한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포함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놓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나온다는 사실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는 이와 같은 흥미로운 구조나 배열이 나타난다. 우선, Luke, 그리고 이것은 잠시 후에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는 로마 세계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소위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불리는 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가리킨다. 또 그 말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를 가리킨다. 즉, 예수, 누가는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을 로마 세계 전체의 맥락에 두는 것을 큰 의미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레뇨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그 당시 황제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 세계 전체의 맥락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 두 장에서 더 넓은 로마 세계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는 끝나고 누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의 끝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끝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끝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으로 행2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은 더 넓은 로마 세계 내에서 복음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 로마 세계에 전해지면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구조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하고 중간 부분도 동일한 경우를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작업이 안쪽으로 이동했다가 반복되어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교차교차(chiasm)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더 넓은 로마 세계의 맥락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이 로마 세계를 포용하도록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루크 측에서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그가 하려는 일이나 적어도 그가 하고 싶은 독특한 일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구절을 강조하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지 지점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제가 보기 전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페이지를 보나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노트의 16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 개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기 교수 중 한 명인 Paul Borgman이 영어 교수인 Luke에 관해 쓴 책인 Luke에 관한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쇠를 제안했는데, 이 윤곽선이 여러분의 메모에서 교차점처럼 보이는 것을 주목하세요. 시작과 끝은 동일하며 중간까지 작동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내용의 모든 세부 사항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작품을 어떻게 배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작해서 중간까지 작업한 다음 책이 다시 작동합니다.

때로는 중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처럼 중앙에 있는 것이 종종 강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 구절인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한 누가의 설명으로 시작하여 실제로 누가에게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즉, 누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왕실의 대접을 받는 것과는 달리 예수가 왕의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데 헤롯왕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성취를 위해 그에게 값비싼 선물을 가져온 외국 고관들이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굴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두리와 역겹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종족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점은 누가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썄, 그는 그것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것은 그의 목적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가는 목자들을 예수께 방문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강조하고 싶어하며 우리는 이것을 다른 두 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의 역겨운 요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을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베들레헴의 아늑한 산기슭에 사는 멋진 사람들로 미화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사다리.

그들은 일종의 다운 앤 아웃터이거나 사회에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머지 복음 전반에 걸쳐 그의 주제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변방, 모두가 거부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는 이 역겨운 목자들이 예수께 와서 그를 방문하고 그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에 주의를 끌면서 그 주제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장은 누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가 예수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져오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장면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중앙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예에서는 보그만 교수가 쓴 책을 보시고 싶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 부분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종종 여행 이야기라고 불리는 중심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곳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절정에 달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일종의 교차 현상입니다. 훨씬 더 자세한 점을 제외하고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복음의 중앙 부분을 보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루크가 단지 앉아서 머리 꼭대기에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그 자신의 질서정연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매우 잘 짜여지고, 조합되고, 세심하게 구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외에도 누가복음에 독특한 몇 가지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비유를 읽는 방식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서 우리는 이미 이번 학기 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영웅이자 바람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마리아인을 길들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 큰 경멸과 혐오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 가장 가능성이 낮은 영웅이었습니다.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 영웅이나 지도자가 아닌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의 영웅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에 역겨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루크만이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글썄요, 아마도 매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가능합니다. 어쩌면 마크는 몰랐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다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의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예수의 비유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복음의 강조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사회의 엘리트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또는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겨운 사람들, 모두가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지만 누가복음 10장의 강조점과 잘 어울립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몰랐지만 아마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누가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병에 걸린 10명을 고쳐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심각한 피부병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에서 당신은 부정했고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추방되었으며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누가는 예수께서 나병환자,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나병에 걸린 10명을 고치신 후 그들은 모두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나병환자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누가의 강조에 맞춰, 예수께서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사회의 변두리,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의 부적응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다가가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다지 많지 않은 또 다른 예는 비유가 아니지만, 역시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아직도 그 노래를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일학교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삭개오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의 중요한 점은 첫째,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루크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존에는 없습니다.

오직 루크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원은 목자들보다 사회적 수준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일했던 대부분의 세리들, 특히 유대인들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을 별로 호의적으로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세리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정부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대개는 일종의 탁자 밑에서 돈을 모으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비록 큰 부자였을지라도 거의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며 사마리아인과 목자들과 문둥병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들, 만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보시다시피, 누가복음 2장부터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부터 그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는데, 나병환자들,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이 당시의 부유한 사람이나 엘리트 또는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15장, 예, 계속하세요. 문둥병자들은 내 머리 꼭대기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장에 있는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삭개오도 10장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19챕터나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비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 중 일부는 마태복음의 내용과 겹치지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셰퍼드가 양을 모두 데려오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만 들어오고, 나가서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렸고,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주제는 동전이나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셰퍼드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도록 양을 찾았을 때 일어나는 기쁨이 강조됩니다. 이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것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처음 두 구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소외자들과 어울리고 계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분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토론했던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 로마의 통치와 당시의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순결과 의식의 순결에 초점을 맞추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회의 역겨운 요소들과 연합하는 것을 보고 모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 왜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라면 확실히

율법,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고 확실히 이런 사람들, 특히 세리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며 우리를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조점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이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런 사람, 심지어 이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이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투덜대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동전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물론 잃었던 사람을 찾아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들은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비유의 절정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탕자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에는 파워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

흥미롭게도 이 비유를 읽을 때 대개 아들, 탕자, 막내 아들이 모든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탕자라 불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상속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확실히 극도의 무례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도망쳐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결국 돼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이 돼지에게 먹이는 음식을 자기도 먹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적어도 아버지는 나를 노예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내가 여전히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약간의 배경 정보. 아마도 저는 이 비유를 자주 읽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몬타나 남동부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면 때로는 이웃이 문자 그대로 20~30마일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목장 너머의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때로는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진입로, 흙으로 된 주요 도로, 진입로에서 집인 목장 집까지 가려면 5마일이 더 필요했습니다. 길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몬타나나 뭐 그런 곳의 외딴 곳에 있는 일종의 목장주였다는 관점에서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중동의 전형적인 마을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들, 아마도 모두가 아들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에게 인사하러 달려가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대 근동 지역의 부유한 아버지이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면, 당신은 달려가서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입니다. 아버지는 온 공동체 앞에서도 나가서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자신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점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기를 대접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받아주심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은 탕자와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이 비유에 세 번째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큰 아들의 상호 작용이 비유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큰 아들이 들어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은 그를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고 이 잔치를 열었고, 이로 인해 큰 아들은 질투하고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글썄, 작은 아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종노릇을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즉 비유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무나 질투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였느니라. 그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비유가 끝나고 누가복음 16장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비유에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네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탕자와 아버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파티가 진행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러 와서 "무슨 일이야?"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했던 당신의 아들이 그를 위해 파티를 열었다고요? 나는 어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의 이 동생을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하리라 하더라. 그는 죽었고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비유의 끝.

무엇이 빠졌나요? 이야기 분석에 능숙한 문학 평론가 여러분, 이 비유에서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응, 형 반응은 어때? 그 사람이 파티에 참여했어? 아버지가 그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입했나요, 안 가입했나요? 아니면 다시 현장으로 나갔나요? 비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비유가 의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적절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비유를 끝낼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할까요? 세리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독자들에게 비유를 끝내도록 요청하기 위해 비유를 끝없이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불평하여 예수님과 거리를 둘 것입니까? 괜찮은.

이것들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본문들 중 일부입니다. 질문 중 하나는 퀴즈에 있는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읽은 내용을 통해 파악하셨기를 바랍니다. 루크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절반, 누가복음의 절반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크는 그에게 매우 독특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중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나 적어도 같은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가 강조하는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적어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장부터 예수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1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장은 2장과 마찬가지로 겸손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굴욕적이고 역겨운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던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는 삭개오를 자기에게 오라고 했고, 실제로 그는 세리인 삭개오와 함께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회에 다가가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갖고 계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구약의 율법 등에서 금지되었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예수는 누가가 예수를 묘사하고자 하는 주요 방법으로도 묘사됩니다.

마태가 예수를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세이자 교사로 묘사한다면. 마가가 예수, 인성, 신성 사이의 균형을 묘사한다면. 누가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누가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 중 하나인 구세주(savior) 또는 구원하다(save)라는 동사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 내용을 비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특히 세금 징수원이나 죄인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자와 사회적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기억하신다면, 복음의 마지막 부분, 즉 이것의 절정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 길로 알려진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과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그들이 모두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는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묘사합니다.

즉 구약성경의 목표이자 성취이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누가가 마태와 공유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메시아이자 왕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며, 때로는 이방인을 강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특히 처음 두 장에서 예수를 묘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왕이 결국에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묘사됩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강조점은 그것이 단지 1세기 또는 대략 1세기 동전의 그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돈과 소유물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그 목적을 겨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쯤 읽어야 할 누가복음을 읽을 때 부와 돈의 문제를 다룬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눈치채셨나요? 게다가 다시 삭개오에게로 돌아갑니다. 세리로서의 삭개오는 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신 후,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후에,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거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서 훔친 것이나 빼앗은 것까지 4배로 갚아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있는 후에도 그는 여전히 꽤 부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다소 부유한 개인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히 밝히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누가가 기독교 공동체의

부유한 구성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부를 강조하는 그의 청중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특히 삭개오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누가는 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신 가난한 사람들과 부를 나누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강조와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누가의 가르침에는 부를 축적하고 모으는 것을 정죄하고 대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물질적 소유, 부,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누가가 연설하고 있는 청중 때문일 수도 있고 적어도 청중의 일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전체에서 강조되는 주제 중 하나는 기도와 찬양의 주제이다.

먼저,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가 그의 삶의 주요 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예수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긴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인 기도와 찬양은 사도행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의 핵심과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또한 1장과 2장부터 시작하여, 특히 1장과 2장을 다시 읽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찬양의 찬송으로 반응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가장 훌륭하고 잘 알려진 작품은 마리아의 마니피카트(The Magnificat)입니다. 1장을 읽어보세요. 목자들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체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즉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예배의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루크에 관한 다른 주제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주제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의 배경과 주제에 관한 신약성경 역사와 문학 강의 10번을 발표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